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9. The fall – part 2”

Scripture: Genesis 3:14-24

Date preached: March 1st 2026

Scripture: Genesis 3:14-24

14 So the LORD God said to the serpent:

“Because you have done this,
You *are* cursed more than all cattle,
And more than every beast of the field;
On your belly you shall go,
And you shall eat dust
All the days of your life.

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16 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sorrow and your conception;
In pain you shall bring forth children;
Your desire *sha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17 Then to Adam He said, “Because you have heeded the voice of your wife, and have eaten from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you, saying, ‘You shall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your sake;
In toil you sha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18 Both thorns and thistles it shall bring forth for you,
And you shall eat the herb of the field.

19 In the sweat of your face you shall eat bread
Till you return to the ground,
For out of it you were taken;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20 And Adam called his wife’s name Eve, because she was the mother of all living.

21 Also for Adam and his wife the LORD God made tunics of skin, and clothed them.

22 Then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to know good and evil. And now, lest he put out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23 therefore the LORD God sent him out of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24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cherubim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배로 다니고 □□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
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

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사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18 땅이 네게 가시땀과 양귀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땅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사되 보라 이 땅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땅과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땅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땅과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Review – The fall -part 1

Last Sunday we looked at the first 13 verses of chapter number 3. They reveal the most tragic story imaginable. They outline how a perfect world was corrupted by man's decision to rebel against God.

Sometimes you will hear people say that a single event or moment in their life changed everything. In some cases this may indeed be true. One move for either good or bad changed their world. Perhaps the repercussions of this single moment ripple out and impact other family members or friends. That as we know is often the case. Our life choices often affect those around us. But in Adam and Eve's case their free will choice to disobey God impacted all of humanity. Every single human being since they bit into that fruit was born with a sinful nature and into a sin cursed world.

Today we will pick up where we left off last week and see how God responded to the fall of man. Before we do however let us briefly recap the main points from last week. Chapter 3 begins by introducing us to a new character in the story. "It" is described as being a cunning and crafty snake or serpent. As I told you last time I believe we should read this literally. This is not an allegory or a myth. It is referring to a real flesh and blood snake. 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eature's appearance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to the snakes we see today. Since a result of the curse was that snakes would crawl on their bellies we must assume that the original snake either had legs or moved around in an upright manner.

So it was a reptile that approached Eve in the garden, but it was under the control of Satan. Various theories have been proposed for how this took place. I am inclined to think that Satan indwelt or possessed the snake so that he could speak through it.

Satan began his discourse by asking Eve a question.

What he is trying to do is plant the seed of doubt or confusion within her mind, "**Is it really the fact that God has prohibited you from eating of all the trees of the garden?**" This is a twisting of what God had really said. They weren't prohibited from eating from all the trees just one particular tree. God had in fact been very generous, but Satan is manipulating Eve so that she begins to reconsider God's generosity. Has God really been good? Or has He in fact been selfish and mean to keep the fruit from this one tree from them.

Eve answers Satan's question but as she does, she mishandles God's Word. She omits, changes and adds to what God had actually said. In effect Satan has succeeded in making her question or doubt what God had said. Satan then seizes upon this moment of doubt. He tells Eve that she won't die as God had said. God is a liar. And in fact He is selfishly keeping this good thing from them because

He does not want them to realise their true potential. So what Satan is effectively saying is that in order to discover what is really the best for you, it is necessary to reject God and disobey His command. Satan employs the same tactic today. He tries to convince us that God is holding back good things from us. Instead of truly caring about us, He's a killjoy seeking to spoil our fun! Sadly Eve believes the lie. The tree and its fruit do indeed look appealing. She craves the knowledge that eating the fruit will bring.

So having bought the lie she takes and eats the fruit before passing it to Adam who does the same. At this very moment in their act of rebellion sin entered the world. The pure innocence that they had enjoyed was now forever shattered. Their eyes were now opened to the full range of possibilities; both good and bad. For the very first time they felt shame and guilt. They noticed that they were naked and desired to cover themselves. This they achieved by sewing fig leaves together.

We then learn that God came looking for them. It appears as if they had established a pattern of fellow-shiping with the Lord during the cool part of the day. But due to their guilt and shame Adam and Eve now hid. God calls to Adam who admits that he was fearful and naked and that was why he concealed himself. God knows what Adam has done but graciously offers him the chance to confess and repent. Instead, Adam blames Eve for what happened, and in fact even points the finger of blame at God. He gave him the woman so really it's His fault.

When God asks Eve why she did it she too blames someone else. In her case she blames the serpent for deceiving her. Adam as we noted last time could not make such a claim. He was not deceived. As the federal head of all humanity he willingly chose to sin. All of us inherit a sin nature that comes directly from Adam.

Today we will see God's judgement on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fall of man. He will pass judgment on the snake, Satan, Eve and finally Adam.

복습- 타락 The fall -part 1

지난 주일 우리는 3 장 1 절부터 13 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 ◻◻◻◻◻◻◻◻ . 완벽했던 세 ◻◻◻◻◻◻ ◻◻◻◻ ◻◻◻◻ ◻◻◻◻◻◻◻◻ ◻◻ ◻◻◻◻◻◻◻◻ .

때때로 사람들은 한 사건으로 또는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단 한 번의 행동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때론 그 순간의 여파가 파급되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한 입 베어 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채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장은 새로운 등장인물과 함께 시작하는데, "그것"은 교활하고 간사한 뱀으로 묘사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유나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뱀입니다. 다만 그 생물의 모습은 오늘날의 뱀과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로 뱀들이 배로 기어 다리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뱀은 다리가 있었거나 딱딱하게 서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이브에게 다가온 것은 파충류였지만, ◻◻◻◻◻◻ ◻◻◻◻◻◻ .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뱀에 빙의하여 뱀을 통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 ◻◻◻◻ ◻◻◻◻ ◻◻◻◻ ◻◻◻◻ ◻◻◻◻◻◻◻◻ . "정말 하나님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맞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관대하셨지만, 여 하나님의 관대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일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심술궂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걸까?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생략하고 바꾸고 덧붙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순간을 틈타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분은 이기적이어서 너희들이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좋은 것을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려는 심술궂은 분이야. 슬프게도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금진된 나무 열매는 정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될 지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속은 하와는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도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 반역의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완전했던 순수함은 이때부터 영원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선과 악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몸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은 평소에 해가 질 무렵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자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을 아시지만, 그분의 은혜로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하와를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으니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그랬는지 물으자 하와 역시 다른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녀는 뱀이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수장으로서 그는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뱀, 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4 So the LORD God said to the serpent: “Because you have done this, You are cursed more than all cattle, And more than every beast of the field; On your belly you shall go, And you shall eat dust All the days of your life.

God turns first to deal with the serpent. We are of course dealing here with the natural reptilian creature. God will deal with supernatural Satan in the following verse.

Now some raise a very valid objection here as to the fairness of this.

After all, if the snake was “possessed” by Satan it seems unduly harsh to punish it and all subsequent snakes for something it could not resist. Of course that assumes that the snake wasn't in some way complicit. Today snakes are non-rational creatures. But we have no way of knowing whether the pre-fall snake willingly entered into this arrangement with Satan. But even if this were not the case God's curse still fell upon the serpent because under God's law a beast that injures a person must be put to death (Gen 9:5, Exo 21:28). God designed the creatures of this earth to help not harm us.

We still apply this law today. A dog that bites someone will in most case be euthanised. In addition

뱀은 하외에게 직접 신체적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온 인류에게 큰 영적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뱀이 벌을 받아 미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뱀을 저주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뱀을 영원한 타락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뱀을 보고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낄 때마다,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뱀들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뱀은 사탄의 미래 멸망을 상징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뱀을 볼 때 우리는 에덴동산과 인간의 타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뱀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일련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첫째, 뱀은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뱀과 거미가 단연 1 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뱀은 인간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했고, 그 결과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또는 "핥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뱀이 실제로 먼지를 먹거나 핥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흙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 □□ □□□ □□□□□□(마가 7:17, 이사야 49:23).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심하게 굴욕 속에 살거나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뱀 그리고 사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뱀을 다루셨고, 다음 구절에서는 □□□□□ □□□□□□.

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Satan of course is the real culprit so God turns to deal with him next. As part of his curse there will be enmity or hostility between Satan and the woman. What Satan had hoped to do was usurp God's authority. When he told Eve that God was a liar he wanted to win her over to his side. He desired her to accept him as being the real truth giver. What a coup it would have been for Satan to win the devotion of the mother of all living. God tells him here that his plan has failed.

From this point on there will be hatred, ill will or hostility between Satan and the woman.

It would, I think be fair to describe what God says here as a declaration of war. Who will make up the opposing sides?

On the one side we have Satan's seed or family. Who would we include here? Clearly anyone who rejects God and sides with Satan. Or more broadly it includes anyone who relies upon their own religious self-righteousness to see them right in God's eyes. Also among this group are counterfeit Christians. People who claim to follow Christ but in fact are His enemies.

In the Parable of the Tares (Matt. 13:24–30, 36–43), Jesus states clearly that Satan has "children." They are people who may profess to be true believers but they are actually counterfeits. The parable reveals that wherever God "plants" a true child of the kingdom, Satan comes along and plants a counterfeit. The two grow together and won't be separated until the harvest at the end of the age. The Pharisees were "children of the devil" according to John the Baptist (Matt. 3:7–10) and Jesus (12:34, John 8:44).

On the other side opposing the army of Satan we have God's family. The people of God will always be at war with Satan and his followers.

We then come to one particular enemy of Satan. You will note the shift from talking about seed in

general to referencing a singular “he.” Who is this referring to? I'll give you a little clue. The seed who will finally defeat Satan is no ordinary man.

As we discussed in a previous sermon this is the first prophecy recorded in scripture. As you may remember we refer to it as the **protoevangelium**. The word “Protoevangelium” comes from two Greek terms: “*proto*,” meaning “first,” and “*euangelion*,” meaning “good news” or “gospel.” So when we put it all together what we are reading here is the **first gospel proclamation**. This means that the “He” in view here is none other tha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e will come through the seed of the woman.

If you study biblical genealogies you will soon note that the biblical norm is to trace genealogies through the fathers (see Genesis 5, 11; 1 Chronicles 1–9). Father A begot son B, Son B begot son C and on they go!

Biology tells us that a man puts the seed (sperm) inside the woman where it joins her egg and a child is conceived. Women then don't possess seeds. But there is something special, in fact unique about this particular seed. Scripture informs us that the Messiah would be born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human father (Isa 7:14). This then is the first mention of the virgin conception of Christ.

We then discover how this conflict between the Lord Jesus and Satan will play out. The Lord Jesus will bruise Satan's head. Have you ever stamped on a snake? I don't recommend doing it. But let's imagine that there is a non-venomous snake that is bothering you. As you raise your foot to stamp down the irate snake may rear up and strike your descending foot. This does not stop you and you bring your foot down and “bruise” its head. The Hebrew word used for “bruise” here is the word *shuph* (shoop). In some bible versions it is translated as “crush.” The word “crush” much better captures the meaning here. The snake has hurt your foot, but you've killed it by crushing or delivering a mortal blow to its head.

Satan as we know from the gospel accounts most definitely struck a blow against our saviour. Our saviour died in a brutal and traumatic way upon the cross. As Charles Spurgeon says,

“He was betrayed, bound, accused, buffeted, scourged, spit upon. He was nailed to the cross; he hung there in thirst and fever, and darkness and desertion”

But through His humiliation and suffering He dealt a mighty blow to Satan. A death blow that once and for all defeated him.

The bottom line of God's curse on Satan is this. Satan has been the enemy of humanity since the beginning. This means that he can never be trusted. As Peter wrote, he continues to hunt and seeks to devour humans to this very day (1 Peter 5:8). Thankfully he won't be allowed to do so forever. So never underestimate your adversary. But equally do not unduly fear him. Remember He who is in us is greater than he who is in the world (1 John 4:4).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seed}도 여자의 후손^{seed}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He}은 네 머리를 꺾으리라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사탄이 진짜 악인이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일부로 사탄과 여자 사이에는 적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꺾으리라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인 하와를 자기 편으로 얻은 사탄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꺾으리라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점부터 사탄과 여자 사이에는 증오, 적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 □□□□□□□□□□. 그러므로 결코 그를 신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기록처럼 그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사냥하고 삼키려 합니다(베드로전서 5:8). 다행히도 그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우대하심을 기억하십시오(요한일서 4:4).

16 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sorrow and your conception;

In pain you shall bring forth children;

Your desire *sha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God now turns to address the woman; Eve. She, as we have seen was guilty of allowing herself to be deceived and of listening to the evil one and not God. Let us look at the curses that shall fall upon her and all future woman-kind. The first curse relates to an increase in her sorrows.

We know that sadness and sorrows are not limited to women. Men suffer these things too. But speaking in general terms women suffer more than men. I wish this were not true but it just objectively is. Women, being the weaker sex suffer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discrimination at the hands of men.

For example even in an “advanced” and “enlightened” place like the UK women only gained the right to vote in 1918. They were only allowed to stand for election themselves in 1928. Prior to this they had no right to vote for the men who ruled and shaped their lives.

So, it may be true to say that in developed countries women have achieved some degree of parity with men especially at work and in the eyes of the law. But still even in these places inequalities exis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ings are far worse. Women in countless countries across the world are treated little better than animals. To be a woman, wife and mother in such places is extremely hard. It is indeed a life of sorrow and sadness.

I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recently on Islam for a forthcoming bible study. If you want to know real suffering and sorrow try being a woman in an Islamic country. So, I get a little annoyed when feminists slam Christianity and claim that it is anti-women. Let us be honest, not all Christian men are good. And many bad things have been done under the banner of the Christian faith. But the religion of Christianity is the only one that gives women true value and dignity. Only the God of the bible knows and teaches the true importance of women.

Even within the family women bear more sorrows and sadness. Yes, of course fathers suffer and feel sorrow but we all know the tender sensitive hearts of mothers. They are the ones who truly suffer. When children are sick or sad they run to their mothers. When they feel sacred and fearful they call out for their mother.

Next we read that women will experience pain in conception and in bearing children.

I did a little research on this fascinating topic. I wondered which animals experience the most “painful” birthing process.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게 임신하는 고통을 많이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속임수에 넘어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미래의 모든 여성에게 임할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그녀의 슬픔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슬픔과 고통을 겪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겪습

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여성이 더 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서 신체적, 성적 학대와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은 "선진적"이고 "계몽된" 나라에서도 여성은 1918 년에야 투표권을 얻었고, 1928 년에야 비로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좌우하는 남성들을 선택할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직장과 법적인 측면에서 남성과 어느 정도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은 동물들이 나 마친가지로 취급 받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성 아내,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은 극도로 힘듭니다. 참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통과 슬픔을 알고 싶다면 이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으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가 여성에게 적대적이라고 비난할 때면 조금 화가 났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기독교 남성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성에게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여성의 진정한 중요성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은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머니들이 여기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슬플 때 어머니에게 달려옵니다. 동물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미를 부릅니다.

다음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할 것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겪는지 궁금했습니다.

It is a complex and heavily debated subject partly because it hasn't been studied extensively. It's also difficult to measure pain in animals whilst they are giving birth.

But a strong contender for the most difficult birth must go to the spiny echidna. This spiky individual is a native to Australia and New Guinea. The baby echidna known as a puggle emerges from an egg into its mothers pouch. Unfortunately for the poor mother the emerging baby echidna is covered in sharp spikes.

Other potential contenders in the painful birth contest are porcupines for the same reason as echidnas, hyenas for a reason you really don't know and large primates. Large primates such as gorilla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human mothers. Both primates and human beings give birth to big babies.

So as part of the curse on women they will experience considerable anguish and pain during childbirth. This strongly suggests that prior to the fall it was a much easier and less painful experience.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re was no pain or discomfort before but rather that as a result of the fall it would be greatly magnified.

The next aspect of the curse relates to the marriage relationship. This section is one likely to cause offence to some. It is a controversial portion of scripture. So let me tread carefully and cautiously.

Scripture tells us that the wife would from this point on "desire" her husband. Now on the surface one might read that and think it romantic. How nice that the wife desires her husband. What a positive thing. I wish that were what is meant here but it is not. The Hebrew word that is used here for "desire" (*teshûqâh*) means "to crave" or "to long for."

So what it is really telling us is that from this time on the wife will feel a strong urge (desire) to

have the role and place assigned by God to the husband. To put it very simply the wife will desire to rule and reign over the marriage. She will want to dominate and control. In modern parlance she will want to be the one “wearing the pants.”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recognise that the concept of male headship within the family did not come about after the fall. God had already assigned the husband the role of leader within the family. So this hierarchy, or authority within the family did not come about post-fall. So allow me to be very clear on this subject. This is God's design for the family.

The husband is to have the role of self-sacrificing head. This is meant to represent the picture of Christ and His church. In practical terms the husband is to guide, protect and provide for the family in a loving and generous way. He is never to lord it over his family and use his authority to trample down, dishonour or dominate his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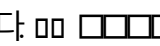
The wife is to have the role as helper, comforter, nurturer and supporter. Wives are never to look at their roles as being inferior and less important than men. Let me be quite clear to wives. Your husband needs you to fulfil your God assigned role. Things work best when husbands and wives willingly and joyfully submit to the roles God has assigned them. When they are happy in them and work together you get a happy marriage and by extension a happy family.


When they don't misery and unhappiness ensues. Look at the divorce rates around the world as evidence for this. Unfortunately as part of the curse women would have to fight the urge to want to rule and control. So what it is really saying is that from this point on the marriage union will frequently resemble a battlefield.

The wife will fight to get control, and the husband will fight to keep it. Doesn't that sentence sum up so many marriages today!

Let us turn now and see what God has to say to Adam.


출산의 고통은 복잡하고 논쟁이 많은 주제인데, 부분적으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출산을 겪는 동물은 가시두더지일 것 같습니다. 이 가시투성이 동물은 호주와 뉴기니가 원산지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가시두더지라도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으니 어미가 참 불쌍합니다.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겪는 다른 동물로는 가시두더지와 비슷한 고슴도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이어나, 그리고 대형 영장류가 있습니다. 고릴라와 같은 대형 영장류는 인간 어머니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장류와 인간 모두 .

따라서 여성에게 내려진 저주 중 하나는 출산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 이전에는 출산이 훨씬 쉽고 덜 고통스러웠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타락 이전에 고통이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타락의 결과로 그 고통이 크게 증폭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저주는 결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쾌해 합니다. 성경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에 주의깊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이때부터 남편을 "원하게 desire"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갈망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일인가! 저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만 입니다. 여기서 "원하다 desire"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תַּשׁוּקָה* (*teshûqâh*)는 "갈망하다" 또는 "간절히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실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위치를 타락 이후에 아내가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내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주도하고 통제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wearing the pants"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성이 기장이라는 개념이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가정의 수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위계질서 또는 권위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자기희생적인 가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남편은 사랑과 관대함으로 가정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부양해야 합니다. 그는 결코 가족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권위로 아내를 억압하거나 모욕하거나 지배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조력자, 위로자, 양육자, 그리고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결코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에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들이 그 역할에 만족하고 협력할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비참함과 불행이 뒤따릅니다. 전 세계의 이혼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주의 일부로 여성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락 이후 결혼 생활은 종종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내는 주도권을 원하고, 남편은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많은 결혼 생활을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 Then to Adam He said, “Because you have heeded the voice of your wife, and have eaten from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you, saying, ‘You shall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your sake;

In toil you sha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18 Both thorns and thistles it shall bring forth for you,

And you shall eat the herb of the field.

God now turns to address Adam. The first thing for us to note is that unlike with the woman God does not put a curse upon the man directly. God graciously spared him that, but he was to suffer for his disobedience. God very neatly summarises Adam's offence. He had been commanded by God not to eat of just one particular tree. The command was plain and straightforward. Adam however made a decision to listen to his wife and in doing so disobey what God had said.

Now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aking counsel from another person. If we have a question on some aspect of our faith or the bible it is good to take this query to a pastor, bible teacher or someone mature in the faith. We can often learn a great deal from their perspective. So Adam's sin was not simply in communicating with his wife. His sin lay in not challenging or rebuking what she said and then in actually joining her in sin. To put it plainly Adam chose Eve and not God. Now some have argued that there is a degree of idolatry at play here. Adam had placed Eve on a pedestal and was looking to her and not to God.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is.

God then makes it very clear that Adam was independently responsible for his choice to eat from the tree. He wouldn'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his rebellion by simply passing the blame onto Eve.

God, from this time on would make life hard for Adam and all subsequent men by cursing the ground. Things would be tough because man would need to struggle and toil to produce food and get what he needed to exist. The earth would go from being a cooperative partner to now being an uncontrolled and uncooperative landscape.

If you have ever had a garden or an allotment and tried to grow things you will know that it's far from easy. Weeds and pests come along and try to eat or destroy your flowers or tomatoes. This is of course dependent upon whether they grow well in the first place. Seeds don't always germinate and grow as we wish.

Prior to this time farming or producing food was easy. Adam planted seeds and they grew quickly and well. Gardening in such circumstances would have been a pleasure and a joy. Sadly this was no longer to be the case. Growing food was now to be difficult.

When we logically assess what we are being told here it provides strong evidence against the earth existing for millions of years prior to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This is what evolutionists claim. The fossil evidence show millions of years of death. But this simply does not fit with the biblical narrative. Physical death is a curse, a punishment that God is now, for the first time placing upon sinful man. If physical death had existed for hundreds of thousands, or millions of years it would hardly have been a novel punishment. Adam could have replied, "So what? This was going to happen to me anyway." Adam didn't or couldn't have said this because death was new. It had not existed before.

Death let us not forget was not part of God's original plan for man. What are we told when the Lord Jesus found out about the death of His close friend Lazarus?

It's the shortest and arguably one of the most moving verses in scripture. John 11:35 reads,

Jesus wept.

Why did our Lord and saviour weep? He wept because He recognised the tragedy of death and how completely out of place it is in God's world. We know this to be true. When we lose people we love it leaves a horrible empty void inside. A void caused by the consequences of sin. That is why our Lord, and we too weep when people die. We take comfort of course knowing that we will meet again those who die in Christ. Again this should act as a strong incentive for evangelism. You will not see again anyone who dies without placing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So do not delay in sharing the gospel with this person.

Let us continue.

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 아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고된 노동의 저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담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는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의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 중 가장 파괴적인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끝은 수고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순간 육체적인 죽음은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천천히 작용하는 치명적인 독을 마신 사람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독을 삼키는 즉시 죽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부터 죽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독이 마침내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그들은 말하자면 "□□living dead"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이제 육체적 불멸을 누리는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는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덤이나 매장지를 발굴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뼈 몇 조각과 금속 유물이나 장신구 정도만 나올 뿐입니다. 근육, □, 조직은 이미 오래전에 흠으로 변해 자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육체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논리적으로 평가해 보면, 지구가 인간 창조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수백만 년 동안 죽음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처음으로 내리시는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만약 육체적 죽음이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 왔다면 그것은 결코 새로운 형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뭐 달라질게 있나요? 어차피 나에게 일어날 일이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새로운 현실이

있기에 아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원래 계획에 없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 장 35 절에서 기록하길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

우리 주 구원자 예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분은 죽음의 비극과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얼마나 적합하지 않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 □□□ □□□ □□□ □□□ 다. 죄의 결과로 생긴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20 And Adam called his wife’s name Eve, because she was the mother of all living.

We have of course been referring to Adam's wife as Eve for some time. But in truth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he is named in scripture. Prior to this time she is referred to as a *female* (Genesis 1:27), a *comparable helper* (Genesis 2:18), a *woman* (Genesis 2:22, 23), and a *wife* (Genesis 2:24, 25; 3:8). Now,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prior to this time she had no name. When you are at home alone with your spouse you probably don't call them by their given name.

Adam, as the federal head and leader of the family again takes the naming responsibilities.

He names the woman Eve. This is the Hebrew word *chavvâh* (pronounced khav-vaw). It means “life giver,” or “living.” This is entirely appropriate. All human life can trace its ancestry back to Eve. However at this time Eve was not a mother at all. Adam then named her in faith. He trusted that God would provide a redeemer through her seed as He had promised.

In the 1980s, geneticists analyzed mitochondrial DNA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y came to a startling discovery. Startling, I should say for evolutionists, not for bible believing Christians. They found that the similarities among the DNA indicate that all people on earth are descended from a single human female. Even evolutionists have called her "Mitochondrial Eve." Interestingly, there is a parallel account with males. Evidence from the Y-chromosome is consistent with all people being descended from a single man.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러왔지만, □□□□□□ □□□ □□□ □□ □□ □□□ □□□□□. 그 이전에는 그녀를 '여성female'(창세기 1:27), '돕는 배필comparable helper'(창세기 2:18), '여자 woman'(창세기 2:22, 23), '아내wife'(창세기 2:24, 25; 3:8)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녀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배우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인류의 수장이자 가족의 가장인 아담은 다시 한번 이름을 지어주는 책임을 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바(chavvâh)이고, □□□□□ □ life giver' 또는 '□□ living' 을 뜻합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이름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와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하와는 아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믿음으로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녀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길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1980 년대에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의 미토콘드리아 DNA 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DNA 의 유사성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조차 그녀를 "미토콘드리아 이브 Mitochondrial Eve"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Y 염색체 분석 결과는 모든 사람이 한 명의 남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21 Also for Adam and his wife the LORD God made tunics of skin, and clothed them.

As we saw before part of the consequence of sin resulted in a loss of innocence. Prior to this time Adam and Eve had been naked but in their purity this had not been a problem. In the pre-fall world nakedness was acceptable. With sin came shame, guilt and awareness of their nakedness. Nakedness was no longer appropriate. So Adam and Eve had tried to cover their shame and guilt with clothes sewed together from fig leaves. These fig leaf aprons were hardly sufficient to cover them. Perhaps they covered what was necessary, but they provided no warmth or real protection and were far from durable. So God made tunics out of skin for them to wear. This is a highly significant moment in the story and not one to pass over lightly. It goes far deeper than simply God wanting them to look a little more presentable.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e origin of this skin.

I'm sure you realise that we are speaking here of an animal skin. Some animals like sheep and llamas can give up their wool which can then be turned into a sweater without the animal perishing. But to give up your skin means dying. So God had to kill an animal in order to provide clothing for Adam and Eve. Or let me put it another way God had to sacrifice an animal in order to cover their guilt or sin. The bible does not say so explicitly but some commentators suggest that God killed the animal in front of Adam and Eve. It was as if He was saying, Look! This is the consequence of your sin. An innocent beast must die. And over the centuries millions of innocent beasts would die.

This this served as the first lesson for humanity.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can be no forgiveness for sin (Heb 9:22). This act has both a physical and a spiritual dimension for Adam and Eve. Physically, God clothed their nakedness. They now had nice warm and well made clothes to wear. Spiritually, He also covered their sin by making for them their first atonement. The sacrifice of the animal served to temporarily cover their sin before Him.

The word "atone" is derived from the Hebrew word *kaphar* meaning "to cover." It is a covering for sinners provided by the death of an innocent substitute. As we know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sins before God had to be atoned for by offering a sacrifice to God. An innocent ox, sheep or other animal was offered as a blood sacrifice. Under the old law an animal must die to cover or atone for the sins of a human being. However the deaths of animals were only ever sufficient to cover, not take away sin. That was why the sacrifices had to be made repeatedly. An all sufficient atonement would have to wait until our Lord and saviour offered Himself as our atoning sacrifice. He, perfectly innocent as He was provided the single all sufficient sacrifice that once and for all covered the sins of those who have faith in Him.

So what do we learn from this. Let me give you five lessons.

- First, to approach God, we must have a proper covering.
- Second, our man-made covering is not acceptable. Our works and efforts do not impress God.
- Third, It is God Himself who must provide the covering.
- Fourth, the proper covering requires the shedding of blood. It once was animals but now it is Christ's precious blood.
- Fifth, God's grace provided for Adam and Eve. Their all important covering was given to them before they were sent from the Garden in Eden.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three verses.

21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앞서 보았듯이 죄의 결과 중 하나는 순수함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순수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전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죄와 함께 수치심, 죄책감이 따라왔고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옷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리려 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가리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가렸을지 모르지만, 온기나 진정한 보호는 제공하지 못했고 내구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을 잘 입을 것을 원하신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죽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양이나 리마와 같은 동물들은 털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아도 그 털로 스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가죽을 준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 어떤 동물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라, 이것이 너희 죄의 결과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수백만 마리의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히브리서 9:22). 이 행위는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 영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따뜻하고 잘 만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속죄를 제공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속죄하다(atone)"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파르(kaphar)*"에서 유래했고, "덮다(to cover)"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죄를 가리는 덮개는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으로 제공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죄 없는 소, 양 또는 다른 동물들이 피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옛 율법 아래에서는 동물이 죽어야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덮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반복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덮개가 필요합니다.
- 둘째, 우리가 만든 덮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 셋째, 덮개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 넷째, 합당한 덮개는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피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귀한 피입니다.
- 다섯째,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덮개를 주셨습니다.

다음 세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2 Then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to know good and evil. And now, lest he put out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23 therefore the LORD God sent him out of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24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cherubim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The account of the fall judgment concludes with God determining what to do with Adam and Eve. We come first to the expression,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to know good and evil.”** This expression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Firstly we might ask how are sinful human beings like God. The reformer Martin Luther believed that God was being ironic here.

This was of course what Satan claimed to Eve. Eat the fruit and you can become like God. Clearly now, post fall Adam and Eve have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Prior to this they knew only good.

So in some sense they are more like God in that they have a broader range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However in their desire to know more they had actually lost what was good and exchanged it for what was evil.

The second issue regards who God is talking to. Who is the “Us?” We have a number of possibilities. Is God addressing angelic beings? Biblical scholar Thomas Constable believes this to be what is happening. However if this were the case it runs dangerously close to placing God and the angels on a similar level. Others think that once again this is a meeting of the divine counsel. That the triune God is discussing this issue.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are saying that now man has this knowledge he is more like us. Personally I favour this view.

Clearly now that man is corrupt he can no longer be permitted to stay in the garden. As parents we at times have to make hard decisions regarding our children. We may act in ways that at the time seem harsh but are in reality for the well-being and benefit of our children. We refer to this as “tough love.” God then is required to act in such a way. If He allowed them to stay in the garden they would continue to eat the special fruit from the tree of life and live eternally. Now one might read this and think that God is being unduly harsh. But I would argue that it is actually an act of God's grace. Allow me to explain.

If God allowed Adam to stay his life of hard toil and his ability to rebel against God would be unlimited. Also his impact on other, future generations would also be unlimited. And most importantly his separation from God would be unlimited. The fact that God expels him means that these negative things are now finite. Man will not be enslaved by them forever. He will not need to suffer an unending, hopeless existence separated from God.

The Lord has made His decision. He sends or perhaps more accurately drives them both out of the garden. They never would have left voluntarily. Who could blame them. Why would they ever willingly leave this wonderful place designed with them in mind. Why would they want to leave a place where they could forever encounter the Lord. But now in their fallen state God cannot have them there. They are driven out and two obstacles are positioned to stop them trying to sneak back in.

The first barrier comes in the form of cherubim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Cherubim are fearsome angelic beings. Today we are used to seeing cherubs depicted as chubby little babies with wings and a bow and arrow. This is not how they are in reality. Cherubim are represented in the Old Testament as surrounding and symbolizing God's presence. They are equivalent to God's bodyguards standing guards, or sentries. They are not something to be trifled with.

The second barrier comes in the form of a revolving sword. It is fairly common to see pictures of the cherubim holding this sword. But that is inaccurate. The sword supernaturally hovers and moves in the air. It is held by nothing. But make no mistake. Anyone trying to creep in and steal fruit from the tree will feel its bite.

And so the era of paradise comes to a close. What a short time it was. We do not know exactly how long Adam and Eve lived in the garden. But logic and reasoning suggest it was not very long. God's plan was that human beings forever dwelt in paradise. With the fall came expulsion. Now we exist in what bible commentator John Jeske refers to as a “time of grace.” It is an age in which God graciously gives us a period of time (life) in which we can find our way back to Him through Christ.

Things have been pretty bleak over the past couple of sermons. I wish I could say things would be

brighter next time. But sadly things get darker still. Next time, Lord willing we are going to examine the very first murder.

-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사되 보라 이 땅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 명목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사라**
-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 도는 불 길을 두어 길을 지키게 하사라**

타락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고 끝납니다. 먼저 “**보라 이 땅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타락 이후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직 선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더 넓은 지식과 이해력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 같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들은 선을 잃었고 대신 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입니다. 여기서 “우리 Us”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서학자 토마스 콘스터블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회오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와 더 같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견해를 선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더 이상 에덴동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간혹 자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시에는 기혹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엄한 사랑 tough love"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기혹하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다면 그의 고된 노동의 삶과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정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한정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한정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심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유한해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그것들에게 영원한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절망적인 삶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고,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설계된 아름다운 곳을 왜 자발적으로 떠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왜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고, 그들이 다시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 가지 장애물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에덴동산 동쪽에 배치된 그룹 천사들 cherubim 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천사를 날개와 활과 화살을 가진 통통한 아기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상징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호원과 같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루 도는 불 칼입니다. 흔히 그룹 천사가 이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칼은 초자연적으로 공중에 떠서 움직입니다. 아무도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몰래 들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훔치려는 자는 누구든 그 칼날에 베일 것입니다.

이렇게 낙원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오래 에덴동산에서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와 추론에 따르면 그다지 오래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영원히 에덴동산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 주석가 존 제스케가 일컫는 "은혜의 시대(time of grace)"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π)을 주신 시대입니다.

지난 몇 주의 설교는 다소 암울했습니다. 다음 설교는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하지만 슬프게도 더 어두워집니다. 다음 설교에서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Make a choice

Did you know that when we really boil things down there are really only two religions. They were outlined for us in today's account. There is the religion of fig leaves and there is the religion of God's perfect provision through Jesus Christ. The religion of fig leaves believes that we can cover ourselves and that this will be sufficient. This is what Adam and Eve believed.

Every world religion buys into this. How can you be saved? By following these laws, by doing this, by saying that and by abstaining from this. This is the very definition of a religion of fig leaves. You have to do something in order to be saved.

So it is worth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Is God impressed by our works? Can you be waved on into heaven because you volunteered at the senior citizens home? Can you get a free pass into heaven because you sing on the church choir and helped with the children's ministry? The answer is no, but good works are an essential part of our Christian lives.

So if the religion of fig leaves cannot save us what can? It's the other option. The only way we can be truly saved is if we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We must then place our faith i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e, and He alone is the only covering that God will accept.

So it's a choice of two. The religion of fig leaves or the Lord Jesus Christ. Make sure you choose wisely.

1 선택하세요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교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종교가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잎의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무화과 잎의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릴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믿음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고, 특정한 일을 행하고, 특정한 말을 하고, 특정한 것을 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는 종교의 정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감명을 받으실까? 양로원에서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어린이 사역을 도왔다고 해서 천국에 공짜로 갈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물론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무효과 앞의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무엇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덮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단 두 가지입니다. 무효과 앞인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Sin always has consequences

I remember once in school being sent to see the deputy head-master. I had done something wrong, I cannot remember what it was but I was to receive some kind of punishment. The deputy head-master was a large and intimidating man. As I waited in the corridor for my appointment with doom I began to worry. It was the speculation on what the consequences might be that made me most anxious. Would my parents be informed? Would I be given detention? Might I be paraded around the school as an example? Wrong-doing and sin always have consequences.

We saw that play out in our account today. All those involved in the fall of man were judged and punished by God. The consequences for their rebellion and disobedience were severe. We are still suffering from what Adam and Eve did in the garden. That's a sobering thought.

We might like to believe, and the devil wants us to believe that we can continue to flout God's laws and do as we want without there being consequences. But that is a lie. There are always consequences for us, and potentially for those around us when we sin. So let us all pray for the guidance and insight of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prevent ourselves from giving into temptation and slipping into sin. Also let us pray for the wisdom to know how important it is to regularly go before the Lord and confess where we have sinned. May we never forget that sin always has consequences.

2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께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지만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체격이 크고 위압적인 분이셨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추측하는 것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질까? 방과 후 남아서 벌을 받을까? 본보기로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까? 잘못과 죄를 저지르면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저지른 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숙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 결과가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마귀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항상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와 통찰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자혜를 구합시다.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